

# 5월 2일까지 코로나 특별 방역 집중

광주·전남, 감염 확산 차단에 총력  
공공부문 회식 금지·재택근무 확대  
적발시, 과태료 부과·지원금서 제외

광주시와 전남도가 코로나19 확산세를 누르기 위해 다음 달 2일까지 1주일간 공무원 등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회식을 금지한다.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대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6일 "코로나19 확산세를 줄이기 위해 5월 2일까지 1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방역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 방역주간은 최근 확진자가 꾸준히 늘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 800명 선을 위협함에 따라 이를 줄이려는 특별조치다. 공공부문에서는 지역축제를 포함해 급하지 않은 행사나 대면회의, 회식 등 모임을 금지하고 재택근무는 확대한다. 최근 확진자가 증가 추세인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을 강화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공공부문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를 확대 시행한다. 공무원 등 공공부문의 회식·모임을 금지하며,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불시 단속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에도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추진토록 권고한다.

특히 집단감염 비중이 1월 중순 13.6%에서 3월 말 67.1%로 증가세인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일선 기초단체와 합동으로 5월 7일까지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집중관리 기간 방역수칙 위반 적발 시 과태료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한다. 이와 별개로,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 2주간



일주일간 공무원 회식·모임 전면 금지 시행 첫날인 26일, 광주 북구청 홍보전선과 사무실 출입문에 직원 이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일주일간을 코로나19 특별방역관리 주간으로 정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집합 금지 조치(영업금지), 재난지원금과 같은 경제지원에서 제외한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최근 확진자가 800명 선을 위협하고 있어 결코 긴장을 놓을 수 없다"며 "도민들도 이번 한 주간 가족·지인 간 만남 등 외출을 자제하고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방역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26일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해외 유입 사례를 포함해 모두 500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500명 늘어 누적 11만9387명이 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가

600~700명대에서 500명대로 떨어진 것은 주말·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 탓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인구가 집중된 서울·경기·인천에서 각각 152명, 147명, 13명이 나왔다. 신규 확진자 500명 가운데 60%가 넘는 312명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이다. 광주에서는 15명이 발생했고 전남에선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549명→731명→735명→797명→785명→644명→500명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광주비엔날레 노조, 부당 해고·대표이사 재단 사유화 주장 파장

‘인권 위기 성명서’ 발표

“김선정 대표 직장내 갑질” 주장

국민권익위 등 3곳에 진정서

광주비엔날레 노조조합과 직원들이 비엔날레 대표이사의 노동법을 무시한 부당해고와 재단 사유화 등을 주장하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가 기관에 진정서를 접수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일부에서는 코로나19로 두 차례 연기된 후 어렵게 제13회 광주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이런 사태가 원활한 행사 진행과 비엔날레의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조합과 직원들은 26일 '광주비엔날레 인권 위기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선정 대표이사의 직원 당일 해고 등 노동법을 무시한 부당 해고와 갑질, 대표이사의 재단 사유화, 재단 조직 시스템 붕괴 등에 대

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시 민주인권과 등 3곳에 '재)광주비엔날레 직장내 괴롭힘 사건'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지난 19일 단행된 홍보마케팅 부장의 계약해지 통보를 '노동법을 무시한 부당해고'로 규정했다. 김 대표는 근로기준법 상 계약 해지 30일 전에 당사자에게 알리야 함에도 아무런 예고 없이 계약 만료 당일인 지난 19일 홍보마케팅 부장 A씨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와 관련해 A 부장은 노무사와 상담, 부당해고에 대한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또 현재 진행중인 전시부장 등에 대한 인사위원회 역시 절차를 무시한 표적 인사위원회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 대표가 지난 8월 광주시에 요청한 '2020 광주비엔날레전시 연출 및 실용역 계약'에 대한 감사에 대해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지난 11월 내부 감사를 단행했고, 지난 16일 인사위원회

를 개최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아 무산됐다는 주장이다.

조합원들은 성명서에서 "대표 부임 후 4년 동안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건 수직적 직위 구조에서 오는 직원들의 불안정한 근무방식과 언제든 해고될지 모른다는 반복된 학습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대표이사 개인 관련 공간과 회사 프로젝트를 재단 행사와 연계하고, 원칙없는 조직운영과 기형적 인사 및 불투명한 면접심사위원회 구성 등으로 재단을 사유화 했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진정서에 재단 직원은 물론 퇴사자까지 직장 내 괴롭힘 전수조사를 실시해달라고 요구한 만큼 결과를 기다리며 직무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엔날레재단관계자는 "인사위원회는 비엔날레가 계속 연기되면서 미뤄진 것"이라며 "당초 잡힌 29일 인사위원회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일보가 인재를 찾습니다 제69기 수습기자 모집

올해로 창사 69주년을 맞은 호남 대표 정론지 광주일보가 열정과 패기, 독특 튀는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인재를 찾습니다. 광주일보는 그동안 사건의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발굴, 보도하면서 독자와 지역민의 대변자를 자임해왔습니다. 신문과 인터넷·모바일이 어우러진 융합미디어를 지향하는 광주일보에서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십시오. 호남언론 증가에서 100년 신문의 역사를 열어가길 장의적인 사고와 정열, 지혜와 용기를 가진 젊은이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모집대상		
모집부문	전형절차	자격
수습기자 0명	1차 서류전형 2차 심층면접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전형일정	
전형방법	일정 및 장소
지원서접수	4월 19(월)~28(수)
서류전형 발표	4월 30일(금)
면접	5월 4일(화)
최종합격자 발표	5월 7일(금)
	방문 및 우편접수 개별통보 본사 10층 지면 및 개별통보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1부	양식 당사 홈페이지 다운로드
자기소개서 1부	A4 1장 이내
외국어 성적증명서	TOEIC 또는 TOEFL 성적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석사학위 소지자는 대학졸업증명서 포함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석사학위 소지자는 대학성적증명서 포함
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자에 한함

▶접수처: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세일은행빌딩 10층 광주일보사 경영지원국

光州日報社

## ‘홍차’ 저비용 대량생산...도농기원, 제다기술 개발

전남도농업기술원은 반자동 기계 생산 제다 기술을 개발해 저비용 홍차 대량 생산의 길을 열었다.

26일 전남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녹차와 달리 홍차는 소규모 생산 농가에서 직접 손으로 따르는 수제 생산 방식이다. 품질이 균일하지 않고 대량생산이 어려워 국내 소비량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홍차 수입량도 통계청 조사결과, 지난 2012년 681t에서 2019년 1492t으로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전남도농업기술원 차 산업연구소는 수입 홍차를 대체하기 위해 찾던 수확부터 시들리기, 비비기, 발효, 건조 등 전 과정을 반자동 기계생산시스템을 활용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제다 기술을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기존 손으로 만드는 수제 생산 방식보다 1회 홍차 생산량은 4배 높고 생산 시간은 8배가 단축된다. 고용 노력 비용도 6.7배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홍차의 품질도 균일해 수입 홍차와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전남도농업기술원 차 산업연구소 송돈모 소장은 "이번에 개발한 저비용 홍차 반자동 대량생산

시스템을 활용해 건강을 중시하는 2030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게 간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바로 마실 수 있는 캔, 페트병 형태의 홍차 음료를 개발하고 상품화해 차 소비 확대를 촉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

**(주)오천투자대부**  
2020-금감원-2027 (대부업, 대부중개업)  
여신금융감독국 대부업등록번호 02-3145-8265

**고정수입·안정투자**

**돈 · 늘분**  
**· 쓸분**

**문의.010-3605-5000**

대출금리 최고 연24% 이내(연체금리 연24% 이내) 비대비용 있음  
취급수수료 없음,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2001호(수기동)  
대출시 귀하의 신용에 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24시간 상담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토지·다가구·주택용지, 임야 매매**

1. 상가, 다가구 및 주택용지 ※ 목포남양주주거, 담양양림주거2중

(1) 담양읍 양각리 강변 관광제림, 독립 관광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 15분 공용주차장 도로 3면 포장 배수로 기반시설됨  
경관수려, 정남향, 교통요지 담 4220㎡(1,276평)  
매 ㎡ 6십5만원

(2) 무안군 삼암읍 남악리 준주거지 롯데마트앞 사거리코너  
3만여세대 아파트 핵심상권 1천9평 매75억원

2. 임야 (전원주택 펜션 농가주택, 휴양소 약초재배 적합)

(1) 영암읍 황성리 계획관리지역 포함 7만6천㎡ 광주간 35분  
4차 국도 근접, 마을 변방 편백휴양림 30년생 1만주  
식재 농가용면적 5천㎡ 월출산 바라본 쾌적한 자연경관  
전원주택, 펜션, 귀촌자 최상 ㎡ 5천원 금매

(2) 화순 도곡 신성리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5810㎡(전 포함) 지식강 바라본 마을변방 정남향  
관광제림 경관수려 전원주택, 펜션, 휴양소, 최상  
㎡ 4만원 금매

(3)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5분,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종전 밭으로 경작 평지 토질 마사토 22,140㎡  
각종 약초 재배 최상 현 지적상 맹지 자연림 소나무 자생  
매 ㎡ 2만원

(4)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농림지역 도로접  
62,740㎡ 휴양림 적층 다수 자생 생약재배 적합  
농가주택 ㎡ 5천원 금매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정종기 ☎ 062-268-828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삼힐플러스 길 건너편 동광주빌딩 내

**자본감소공고**

당 회사는 2021년 4월 24일 주주 총회의 결의로 자본의 총액 2,900,000,000원을 금 500,000,000원으로 감소하고 그 방법으로 1주의 금액 금10,000원의 보통 주식 240,000주를 임의 소각하여 발행주식 총수 290,000주를 50,0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 자본 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의 게재 익일부터 1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함.

2021년 04월 27일  
서봉중합건설 주식회사  
전남 화순군 화순읍 칠중로 83-3  
대표이사 정순길

**회사분할 및 채권자의의제출 공고**

전원주택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2021년 4월 26일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당사의 재산(영업)의 일부인 주택건설업 부문을 인적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주식회사 명분 썬앤에스(가칭, 이하 '인설회사')를 설립하기로 하는 분할계획서의 승인을 결의하였으나, 분할 후 인설회사는 당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로 인하여 이전되는 채무만을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께서는 본 공고 게재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당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27일  
전원주택 주식회사  
광주 북구 우치로303번길 2(오차동)  
대표이사 차경출

**광주일보 kwangju.co.kr**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227-9600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220-0551

**光州日報**

**지국안내**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앙 222-9054
- 중 장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은 651-1833
- 봉 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운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 구

- 운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철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